

## 公害放談

崔昌奎 新進建築設計事務所 代表

近來에 와서 公害라는 單語가 우리 周邊에서 많이 使用되고있다. 이 公害란 近來에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人類가 태어날 때 같이 始作된 것이다. 그러나 그 影響力이 表面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또 人間들이 이에 對해 關心을 갖지않고 있었을 뿐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公害의 原菌은 人間이요, 또 被害者도 人間이므로 人間以外의 便에서 볼때는 人間들의 自業自得이라고나 하겠다.

公害란 파브릭 뉴선스(public nuisance) 또는 폴루션(pollution)인데 영어로 그 語意가 말하는대로 1個人이 아닌 많은사람 또는 社會나 國家, 더크게는 地球나 宇宙에 害가되는 作用을 가진 狀態를 말한다. 따라서 그 原因如何를 不問코 公共의 害가 되는것을 公害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 原菌이 人間임에도 不拘하고 그 害는 人間에 미친다는 理解할 수 없는 怪物이다. 人間의 本能이나 屬性, 俗性等의 脆弱點을 파고 들어와서 繁殖해서 그 程度가 人間の 制卸限度를 벗어날때 人間이나 社會나 地球를 危期에 몰아넣고 破壞나 滅亡에 까지 몰고갈만한 勢力을 가지고 漫漶한다.

그런데 이때까지 別로 關心을 기울이지 않던 問題가 왜 近者에와서 갑자기 關心을 돌리게 하고 話題에 오르고 또 그 對策에 對해 論議되는 것일까. 이것은 그 公害의 程度가 어느 限界線을 넘어 直接 人間生活에 介入하기 始作했다는 点이고 1970年 6月 “로마크립” 報告書가 世上에 發表됨으로 더욱 人類의 重大問題로 露出된 것이다.

여기서 “로마크립”이란 어떤 團體인가를 말해줄 必要가있겠다. 1970年 3月에 스위스의 民間法人체로서 世界各國의 科學者, 經濟學者, 教育者, 經營者들로서 講成되어 있으

나 特記할 것은 끝까지 民間人들로서만이고 政府의 官公吏나 公職에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데서 그 純粹性和 어느 政治이데오로기에 치우치거나 特定國家나 集團의 利益이나 見解를 代表하지 않는다는 点이고 이들이 研究 調査에서 近世에와서 急速하게 甚刻한 問題로된 天然資源의 枯竭, 公害로 因한 環境汚染 發展途上國의 爆發의인 人口增加 軍事技術進歩에 따른 破壞力의 威脅等 人類의 危期에 對해 人類救援의 길을 謀索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團體인 것이다. “로마크립”이란 이름은 1968年 4月 첫 모임을 “로마크립”에서 가졌다 해서이고 勿論本部는 “로마크립”에 있다. 이 크립은 “人類의 危期”에 關한 “프로젝트”라는 巨大한 計劃을 1970年 6月에 세우고 앞으로의 人類社會의 危機의 諸要因과 相互作用을 把握할 수 있는 “모델”을 作成해서 將來의 危機의 樣相의 展望과 이를 克服할 方途를 研究檢討해서 同年 7月 여러 會議을 거쳐 世界에 提出된 것이 바로 “로마크립”의 報告書인 것이다.

이 報告書가 世上에 發表되자 世界各國은 警愕과 恐怖에서 對備政策의 樹立과 予算配定 이에 對한 機構設立 法制定等을 서두르게 되고 公害라는 單語가 危機와 恐怖를 並峙해서 모든 人類의 關心事가 된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여기 말하고 싶은것이 “로마크립”報告書에 의한 環境汚染等の 公害가 아니고 數 많은 種類의 公害中에서 우리 關心이나 記憶에 없는 特殊한 公害에 對해 學術的인 아닌 放談形式의 나의 見解와 關心을 말하고자 한다. “로마크립”이 報告한 公害項目에는 精密한 調査와 研究를 土臺로 統計數字와 圖表로서 詳細하게 提示되어있고 또 그 危險性의 分析과 說明 그리고 그 制卸方法과 迴避手段을 學術的으로 또 論理整然하게 被歷하고 可能性을 暗示하면

서 그 可能時間까지 提示하면서 警告하고있어 어디 하나 나무랄 것이 없다는데 反해 나의 所見은 統計나 圖表도 調査도 研究도 解決可能 始點 方案조차도 없는 瞬間瞬間느 낀 것을 記錄할뿐이나 어떤 意味에서는 “로마”報告書의 危機보다도 더 深刻한 點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人間生活에는 現實面에서 物質的 科學的인 것만은 아니고 精神的 또는 內面的인 面도 있어 直接的인 生命의 危機보다도 삶의 意慾을 喪失했다면 即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人間의 本能이나 自尊心이나 矜持가 浸害當하고 良心과 道德이 또는 教養이나 人格에 아무런 比重도 價值도 들 수 없다면 公害로 因해 죽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點에서이다.

여기 便宜上 우리 周邊에 있는 公害에 該當된다고 보는 것들에 名稱을 붙여서 ① 景觀公害 ② 頭腦 ③ 言語 ④ 強要 ⑤ 權威 ⑥ 權力 ⑦ 不潔 ⑧ 嫉妬 ⑨ 記憶 ⑩ 感覺 ⑪ 妨害 ⑫ 誇張 ⑬ 愛國 ⑭ 利己等等的 뒤에 公害라는 單語를 붙여보는 것이다.

① 景觀公害라 함은 都市生活에서 萬人이 다같이 享有해야 할 좋은 景觀을 막든지 또는 그 막는 建物の 摸樣이 醜할 때 느끼는 害로서 이것은 반드시 社會問題가 될 素地를 가지고 있다. 公害가 自己 1人의 範圍에서 加害되는 被害되는 때는 公害가 아니고 오직 被害를 입었다고 되겠으나 1人의 行爲로 因해 多數人이 被害를 입을 때는 公害가 되므로 이 景觀은 公害가 되는 것이다. 民主 資本主義 社會에서 個人의 利益과 自由가 萬人의 또는 國家나 民族의 利益이나 自由보다 于先된다면 말이다 (우리 社會에선 個人의 利益과 自由가 優位에서 본일은 아직 없다고 본다) 아름다운 自然의 景觀을 우리 얼마나 國家나 民族의 이름 아래 破壞했던가를 生覺해보자. 우리들의 삶의 基盤인 大地의 皮膚에 얼마나 많은 傷處를 입혔고 그 大地의 衣裳인 草木을 벗겨버렸던가. 이로 因해 우리 많은 아름다운 景觀을 잃어버렸다 더우기 都市에서는 내 집 코앞에 凶한 摸樣의 建物이 있다면 그 前날의 眺望이나 蒼空이나 日光을 누구에게 되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때의 加害者는 누구이고 被害者는 누구이며 또 加害者의 數와 被害者의 數는 어느 쪽이 더 많은가는 헤어보지 않아도 알 것 인즉 公害임은 틀림없고 머지않아 내 앞의 보기 凶한 景觀을 撤去하라고 主張할 날이 반드시 올 줄 안다.

公害에 對해 世界名國에서 떠들고 있는 “우리들의 푸른하늘을 돌려다오”라든지 “하나밖에 없는 地球를 求하자” 등의 標語를 들고 示威한 나라는 많다.

이때 누가 누구에게 푸른하늘을 내놓으라는 것이며 누가 地球를 害쳤고, 또 救하자 는 것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對象을 明示하지 않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럴 법한 것이 加害者도 被害者도 다 人間이기 때문이다. 自己네들이 害치고 自己네들이 救하자 하니 우수한 이야기밖에 될 수 없다. 이것은 太古時代의 鬱蒼한 樹林과

淸明한 蒼空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建設과 發展이란 이름 아래 헐벗은 大地와 空氣汚染으로 흐려진 蒼空아래에선 살 수 없다는데서 또는 “로마크럽”의 이 項報告의 무서운 數字와 圖表에서 더욱 恐怖心을 가져와 그러 한 示威도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科學的 或은 論理的인 境遇와는 달리 우리는 가끔 地方旅行을 할 때 많은 마을을 지나가면서 어떤 마을 洞口엔 樹木이 우거진 아름다운 마을도 보고 나무하나 없는 寂寞하고 異常한 마을도 본다.

前者의 마을에 들어가보면 틀림없이 富村이고 人物도 나왔고 由緒도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後者의 마을은 반드시 猪博이나 失職者가 많고 特出한 人物도 輩出 못했고 貧村인 境遇가 많다. 이때 생각나는 것은 地球 即 大地의 衣裳인 樹木이 있고 없다는 한 가지 理由로서 이런 兩極의 狀況의 마을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學術적으로 證明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마을의 다른 點이 貧富와 樹木의 有無이기에 그렇게 생각될 뿐이다.

우리 가끔 江原道民을 “감자바위”란 別稱으로 부른다. 그 뜻은 純朴하고 人間味 있고 어수룩하다는 뜻이리라 그것은 決코 惡意의 別稱은 아닌 것이고 親密感 있고 어찌면 모두가 憧憬하는 人間性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韓民族中에서 江原道地方의 사람들만이 別다른 點이 없는데 왜 他道民보다 純朴하고 純眞할까를 생각해 보면 亦是 他道보다 江原道가 越等히 樹木이 많다는 點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大地의 皮膚에 가장 많은 傷處를 입은 大都市보다 皮膚와 衣裳이 健實한 地方이 더 人間味 있는 우리가 은근히 憧憬하는 “감자바위”가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大地上의 草木을 濫伐한 곳에는 公害가 더욱 甚하다는데 首肯이 가고 또 危機도 切迫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未來學者들의 預言에 依하면 將來地球上에 繁榮할 수 있는 나라들中에 “카나다” “인도네시아” 北歐의 몇 나라와 “아프리카”의 몇 나라를 꼽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한결같이 樹林이 鬱蒼한 나라들임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고 反對로 滅亡할 可能性이 많은 나라들中에 日本·美國·佛蘭西 等 機械文明과 科學文明이 現在 가장 發達한 나라임에는 公害라는 立場에서의 判斷임을 알 수 있고, 環境汚染公害를 막는 方法中 科學으로 막는 方法과 自然으로 막는 方法이 있는데 前者는 막았다해도 副次的인 公害가 再燃한다는 點에서 亦是 後者를 挾함이 옳다고 본다면 樹木의 保護育成은 緊急中の 緊急事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樹木이 많다는 것은 即 景觀이 아름답다는 同意語가 된다. 제 아무리 景致가 좋은 곳이라도 樹木이 없다면 어찌 될 것인가. 또 아름답지 못한 곳에 樹木이 많다면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景觀公害란 假稱公害가 眞字公害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頭腦公害란 特히 現社會의 特히 都市人이나 指導層의 頭腦가 이미 公害의 侵蝕을 받고 있어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것이 公害의인 要素를 가지고 있으므로 頭腦公害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頭腦公害란 오늘에 始作된 것은 아니나 過去에는 그 程度와 그런 頭腦를 가진者의 數가 적었을 뿐이고 公害가 公害로 認定될 때도 過去부터 있었고 또 알고 있었지만 그 程度가 危險線에 까지 오지못해서 人間들이 關心을 가지지 못했음과 같이 이 頭腦公害도 이제는 公害로 登場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頭腦는 무엇에 浸害當했을까?

이것은 모든 公害의 原因이된 人間의 所有慾과 消費慾이 自己만이라는 利己的인 것에 기울어 萬事を 未來라든가 人類라든가 國家나 民族이라는것, 또는 社會는 自己 혼자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忘却하고 모든것을 自己為主로 私利私慾에만 致重했다는 浸害를 입은 것이다.

大量所有와 大量消費가 大量生産을 불렀고 大量生産이 또 大量에너지나 資源을 消費하게되니 原資源의 枯渴, 汚染物 放出로서 大氣水質을 汚染시켜서 生存不可能의 環境으로 몰고 왔다고 보면 公害의 原菌이 人間이라 한것은 所有慾과 消費慾을 가진 地球上의 唯一한 存在인 人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頭腦公害도 그 原理에 따라 自身の 意識構造나 思考方式까지도 公害의 方向으로 浸害되어 理性을 잃고 人類存続이라는 點等을 잊어버리고 오직 自己만의 幸福과 安逸을 追求하고 世上萬事を 그 目的에로의 方法이나 手段으로 생각하는것이 即 頭腦公害라고 불러보는 것이고 이 頭腦公害에 浸蝕된 사람이 指導者 일때는 萬人이 입는被害는 엄청나고 滅亡에 까지 이를 수도 있기에 公害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例로서 二次大戰時의 獨逸의 誇大妄想患者인 “히틀러”로 因해 獨逸民族은 滅亡의 危機까지 갔던 일을 想記하면 足하다.

言語公害란 무엇인가 이것은 大端히 推象的인 公害일지는 몰라도 公害임엔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다.

人類는 文化發展하는데 言語를 發明했고 그것이 人類文化에 寄与했음을 認定한다. 各民族間의 情報交換에서 文化의 傳達, 意思의 疎通等 많은 貢獻을 했다.

그러나 近者에 와서 各種言語의 亂造나 亂發은 不愉快하기 그지 없다.

教養이나 矜持, 自尊心이나 人格에 被害를 주는 일이 許多하고 또 이 被害를 입는者가 多數임에 비해 發言者가 1人이라는데 公害의 性格을 띠기 始作했다.

先賢의 名句를 마치 自己創案語인양 言錄이니 論集이니 또는 레디오·TV에서 마구 내팔린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고, 짜증나고 憤怒마저 느끼게 된다면 確實히 公害임에 틀림없겠다.

例를 들어보면 TV의 코메디에서 亂發한 單語를 어린 子息이 집에서나 마을에서 어른들에게나 마구 흉내를 낸다든지 學生들의 隱語에서 流行語, 醜雜한 秘語等 우리 生活周圍에 너무도 많은 不快한 言語가 洪水처럼 밀어닥친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고 現代의 世潮이니 하고 잊어버릴 수도 없을 程度이니 問題가 되는것이다.

더우기 教育은 받았고 내노라하는 人士들의 半以上이 外國語가 섞인 講演이나 글에 接했을 때의 많은 사람들의 不快感이나 아니꼬움은 듣는者의 教養이나 人格에 氣分에 被害를 주는 것이다. 近者言語淳化運動을 云謂함이 이 言語公害가 있음을 더욱 証明해 주는 것이 아닐까?

強要公害란 說明할 必要조차 없다. 我們 每日의 生活에서 얼마나 많은 強要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해선 안된다 저렇게 하면 안되는 數많은 強要서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強要까지 甚至於는 TV의 廣告에 이르러서는 이래도 안볼 것이냐 이래도 이래도 안보아 하는 強要, 各種商人들의 끈질긴 強要, 方法과 手段을 가리지 않는 強要는 너무도 많다. 너무도 많기에 漫性이 되어서 意識조차 못할 地境이다.

돈벌어오라는 마누라의 強要에서 돈이 없으니 참으라는 男便의 強要等 家庭에서 職場에서 社會에서 國家에서 그리고 世界에서, 到處에서 有形無形으로 直接 間接으로 點하고 있는 強要는 숨이 막힐 程度이다.

이 強要公害만은 余他公害와는 性質이 달라서 防止의 手段이나 方法이 漠然하다. 公害中の 極惡公害인것만 같다.

人間이란動物은 여간해서는 滿足을 못하는 動物이라고 하지만 이 強要가 完全히 없어진다면 틀림없이 滿足할 것이다.

強要公害만은 救濟方法이 全혀없다. 科學藥品이나 政治權力이나 經濟力을 가지고도 救濟 못한다.

이것들로서 救濟할 수 있다고 假定해도 이 藥品을 服用하라는 것이 強要가 되고 強要해서 안된다고 權力으로 누른다해도 強要하지말라는 또하나의 強要를 낳기 때문에 防止不可能하다는 것이되고 꼭한가지 있다면 그것은 意識하지 말아야 한다는 自己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意識을 못한다면 죽은 사람이 되니 防止나 制卸도 成立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

權威公害란게 있다. 요즈음 우리社會는 權威公害에 充滿되어 있다. 權威란 他人이 認定할 때 그의 權威인데 證明書나 身分証이나 免許等으로 權威를 세우고 他人이 아니고 本人이 權威者라고 하는데서 公害가 된다.

自稱權威者치고 能力이나 自信이 있는者가 없다. 없기에 自信이 權威者라 自稱하게 된다. 그러면 無能力者가 權威者行勢나 職位에 있을때 萬人이 입는 被害가 크니 公害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周邊에서 各分野의 많은 權威者란 사람들을 알고 있다.

헌데 自称 權威者들이 自身도 能力도 勿論 權威도 없으면서 그分野에서 활개를 치고 있을때를 생각해 보자. 거기에 나오는 結果로 因해 社会나 大衆이나 國家가 입는 被害는 想像할 수가 있으리라. 建築의 權威者, 政治, 經濟, 藝術, 体育, 軍事의 權威者들이 왜 이리도 많은 것일까. 權威者가 많을 적에도 權威者가 될수있을가 나의 좁은 所見으로서는 權威란 그리 많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權威者란 學術的, 理論的, 實務體驗 等의 結果와 그 素質이 뭉쳐서 그의 行跡을 他人이 評해서 비로서 그는 權威者라고 呼稱하는 것이라면 相當한 時間이 걸릴것이고 年輪과 星霜을 거쳐야 할터인데 (即高令) 어쩔일인지 나이 어린 各界의 權威者가 이리도 우리社会엔 많은 것일까 그것도 自稱權威者가말이다. 이런 權威者들이 社会各層에서 權威者然하게 行動하고 있는限 權威者가 못된 多數의 사람들은 処世도 行勢도 못하게 되고 社会風采도 權威만을 찾을 것이니 더욱 살아나갈수가 없게 될 것인즉 이 權威公害도 重大한 社会問題임은 틀림없는 일이되는 것이다.

權力公害 라는게 있다. 原來 權力이란 社会나 國民이 特定人이나 特定層에 준것이 權力이다. 그런데 이 權力的 本質속에 쓰면 쓸수록 肥大해지고 안쓰면 안쓸수록 微弱해진다는 特性이 있다.

또 한번 權力을 잡으면 놓지기가 싫어지고 써보고 싶다는 魔性도 가지고 있는 것이 權力이다. 이러한 特性을 지니고 있는 權力은 쓰려면 그 対象이 꼭 必要하다. 또 쓰는者は 小數이고 対象者는 多數이다. 따라서 公害의 定義에 公共의 被害가 되므로 權力的 亂用은 確實한 公害가 된다.

예를들어보자. 국가나 社会秩序에 絶對로 必要한 것이 法이고 그 法以前에 있는것이 道德이나 倫理 或은 常識이다.

헌데 그 道德이나 倫理의 最下의 最下限界線을 그어놓은 것이 法이다. 이 法도 立法趣旨와 立法精神이 있다.

여기 어떤 母法이 制定되었을 때 그 母法에 따른 施行細則이나 條例, 指示, 命令이 있다.

實務을 執行하는데는 母法의 文句로서는 不可能하므로 施行細則이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인데 바로 이 細則이 母法의 精神이나 趣旨와는 舍혀 다른 그 範疇를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것도 違法이 됨은 勿論인데 細則은 固捨하고 條例나 指達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다.

末端에 附與된 쥐꼬리만한 權力도 權力임에 그 特性을 벗어날순 없다.

따라서 亂用하면 더욱 肥大해진다. 그것이 常例가 되면 더욱 幾何級數의으로 肥大해서 眠下無人, 唯我独尊이 된다. 이것은 政治나 行政의 權力뿐만 아니고 团体나 法

人体나 会社에도 適用된다.

团体나 法人의 定款의 範疇를 넘는 越權이 즉 그것이다.

그러나 越權이나 亂用者들은 한결같이 大義明分을 내세운다. 即 國家나 民族을 爲해서라든지 予算과 時間이라든지, 社員이나 會員 全体를 爲해서라는 明分을 앞세우지만 事實은 權力的 魔力에 麻痺되어 그것을 놓고싶지않으면서 써보고 싶은 것이고 結局은 自己의 位置와 利益을 追求하는 것밖에 되지않는 結果가 되니 내세운 明分은 其實은 가짜인 것이다.

이런때 社員이나 會員, 國民이 입는 被害가 적지 않으니 公害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不潔公害는 汚染公害에도 包含될 수 있기도하다. 그리고 主權的인 面이 없지않다. 不潔을 느끼는 程度가 다르기 때문이다.

거리에 쓰레기가 너저분하다면 누구든지 不潔함을 느낀다. 程度는 달라도 公衆便所가 不潔하다. 이것은 利用하는 사람들이 不快하다. 不潔하게 한 사람은 한사람이고 不快感을 느낀 사람은 많으니 公害라고 이른다. 그러나 不潔公害에는 現實的인 不潔만이 아니고 精神的인 不潔도 包含된다.

即, 潔白하지 못한 사람, 일, 問題, 깨끗하지 못한 言語나 行動이 數 많은 第三者에게 주는 嫌惡나 不快는 確實히 被害이기에 公害인 것이다.

우리社会엔 物質的 視覺的 또는 精神的인 不潔이 너무도 많으니 이것도 公害의 列에 올려놓는 것이다.

筆者가 前年歐美旅行中 都市는 勿論 車窓에서본 農村의 各處에서 煙氣가 나는 것을 보고 異常해서 무엇인가 仔細히 보았더니 쓰레기를 燒却하는 것이었다. 農村各處에서 이런 煙氣가 난다. 現代各國에서 이 쓰레기 問題는 確實히 골치거리임은 틀림없다. 이것은 “로마크립” 報告書의 公害項에도 提示되어 있으나 筆者는 精神的, 內面的, 心理的 不潔도 無視못하겠기에 公害로 보는 것이다.

嫉妬公害 : 異常한 말이다. 이런말이 있는지 筆者도 모르겠으나 우리들의 日常生活에서 이 嫉妬로 因해 被害를 느끼기에 嫉妬公害라고 불러보는 것이다. 嫉妬自体는 어떤境遇 人間에게 有利할 때도있다. 嫉妬를 느껴서 奮發할때이다. 그러나 嫉妬는 이와 反對의 境遇가 더욱 많다. 嫉妬를 느끼므로해서 放害한다든지 謀略한다든지해서 自己와 아무런 利害關係가 없는 境遇에도 못먹는 감 질러나 본다는격의 心理的인 作用이 言語나 行動으로 表現될때 理由없이 無関無知의 사람에게 被害를 입히는 것이다.

한사람이 成功했다고 할때 이를 嫉妬하는 사람은 많으나 被害를 입는者는 그 成功했다는 사람 한 사람 뿐이된다. 이리하므로 眞 公害와는 反對의 性格을 가지게 된다. 即, 加害者가 많고 被害者가 적다는 點에서 公害의 定義에 어긋날지는 몰라도 富나 職位, 名譽에 嫉妬한다면 首

肯이 가지만 美貌나 健康 知識에 까지 또는 住宅福卷 추첨에 까지 嫉妬하는데야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기가 女性에게서 嫉妬와 虛榮을 除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말이다.

記憶公害라고 이름 붙여본다. 人間에게는 記憶과 忘却이란 相反되는 性格의 것을 가지고 있다. 亡却이란 知識이나 學術에는 不利한 것이지만 人生살이에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萬一 親한 벗과 하찮은 일로 싸웠다고 그 感情이 永遠히 忘却되지 않는다면 親旧뿐만 아니라 家族까지나 同僚間 和睦이나 協力이란 있을 수가 없게되니까, 꼭 必要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와 反對格인 記憶도 必要하긴한데 忘却이 이것을 忘却케 한다. 相互相殺해 가는 立場에서 있다. 여기서 記憶公害란 記憶이 忘却으로 가는 것을 막기 爲해 記錄이라는 方法도 있지만 我們 日常生活에서 많은 記憶을 해야 하게끔 되어있어 이것이 괴롭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忘却의 힘이 記憶의 힘보다 強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強한 忘却의 힘을 막기 爲해 자꾸만 記憶해야 한다는 것이다. 記憶은 公害가 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我們生活에 記憶해야 할 (거의 強要되는) 일들이 必要以上으로 많고 그 記憶할 件이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記憶해야 하기에 公害라고 해본 것 뿐이다. 記憶해야 할 것들중에는 各種의 것이 있지만 大部分은 數字인 것이다. 自己집 電話番號에서 市内버스 No. (自己利用하는) 호주머니속의 용돈額數, 汽車나 飛行機時間表에서부터 積金 찾아야 할 사람의 이름, 職場, 來日해야 할 計劃의 일들 집에 쌀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父母의 祭祀날字, 家族의 生日, 住民登錄 No. 事務所 카비넬番號, 浴沐畚, 建築法施行細則日 外国映画俳優의 바스트 웨스트, 히푸에서 무게等……

必要에 依한 強要된 義務化된 記憶이건 常識的인 記憶이든간에 記憶해야 할 것이 自意든 他意든간에 너무도 많으니 살맛이 없어진다. 살맛이 없어지면 죽는수밖에 없으니 確實히 危機的인 公害가 되는 것이다.

感覺公害란 그중의 몇 部門은 “로마크럽” 報告書 中の 公害項에서 記錄되어 있다. 人間の 五感中 어느 感 이든 害를 끼치는 일을 말한다. 干先 視覺公害, 聽覺公害, 觸覺, 嗅覺, 味覺公害인데 視覺公害는 歛景公害와도 一脈相通點이 있고 色彩公害도 登場한다. 이項은 로마크럽 報告書에도 있다. 聽覺公害는 騷音公害 或 音響公害에 屬한다. 超音波로 人間을 殺傷시킬 수 있는 武器도 있다. 여기서는 한여름 더운 市内버스中에서 요란한 流行歌 나 京釜高速道 버스속의 六時間동안 繼續되는 擴聲器에서 나오는 騷音을 말한다. 韓國人이 언제부터 이렇게 音樂愛 護民族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서비스가 苦痛을 주는 것을 意味하는 것임은 運輸會社營業課長님은 모르고 있는 模樣이다.

觸感은 對人接觸에서 不觀切과 오만도 包含된다. 直接

적인 것은 茶房이나 酒店에서 接待婦들의 지나칠 程度의 비범법에서 觸感은 不愉快을 지나 不潔感마저드는 境偶는 確實히 被害인 것이다. 가끔 이 被害를 故意로 願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嗅覺은 배고플때 길가다 果實店앞이나 飲食店앞을 지날때 느끼는 被害 즉 非劣感이나 鬱憤感이나 悲哀같은 感情을 느낄때 그 店鋪로 因한 배고픈 數 많은 사람들이 그냄새에서 被害를 받았다면 이것도 確實히 公害이다. 特히 거리나 버스속에서 술냄새 洋裝美女의 가짜香水냄새 御用學者나 잘팔리는 藝術家들의 풍기는 아는체하는 냄새等 아주고약한 냄새가 我們 周圍에 充滿되어 있으니 그 被害를 입는 사람이 많아 公害가 되는 것이다. 味覺에서는 一流飲食店이나 名店의 名物 飲食의 맛, 茶房의 커피맛 洋酒집의 불탄 洋酒맛, 高名人士와 對話하고 난후의 뒷맛, 서울市水道물맛 等……이것들이다 味覺公害에 屬할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멋있는 맛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妨害公害! 異常한 公害라고 生覺할 것이나 我們다 이 公害의 被害를 입고 있다. 蹴球試合에서 相對便選手가 공을치고 功擊해올때 앞을 막으면 進路放害라고 罰則을 받는다. 이와같이 我們도 進路放害를 많이받고 있다. 特히 빌딩廊下나 階段이나 玄關入口에 서서 이야기 하든지 막아서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왜 이리도 많은지 알 수가 없다. 建物에서 階段과 廊下는 道路의 延長이요, 建物內의 公路인데 여기에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 않든지 막고 있다면 이것은 進路放害의 罰則을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午後 5시서 6시頃의 YMCA앞을 가보면 이 放害公害의 眞意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大路에 가끔 높이신 분들이 지나갈때 모든 進路가 放害된다. 그것도 1時間이나 2時間前부터이다. 外國貴賓이나 오게되면 4~5時間前부터 交通이 放害된다. 金浦空港의 貴賓앞은 이 放害公害가 가장 많은 場所일 것이다. 公路上에 到處에 步哨나 憲兵이나 巡警이 서있다. 이런것은 進路放害에 屬하는지 아닌지 나도 잘모르겠으나 이런것. 저런 것을 모아서 放害公害를 해본 것이다.

誇張公害! 이 公害는 아주 深刻한 公害中の 公害라고 믿는다. 藥廣告에서 商品包裝에서 統計數字에서 機械效率, 學生成績表에서 各種報告書, 新用記事 個人的 履歷書, 実績成果表에서 特完人的 國家에의 奉仕功勞等 農産物收獲字紀行文, 人事紹介, 結婚式主禮辭에서 아-이 公害는 너무도 范濫해 있으니 常識化되어서 公害로 認定도 못받을것만 같다.

愛國公害-엠편부터 愛國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나라는 未開國이라고 한말이 있다. 心理的으로 愛國者는 愛國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8·15解放后 그 많던 愛國者들은 다 어디 갔을가.

6·25當時의 愛國者들도 5·16以後의 愛國者들보다 어디가고 요즈음은 또다른 愛國者들이(自稱) 雨後竹荀 같이 나온다.

이 數 많은 愛國者를 가지고도 왜 統一이 안되는 것인지 더 많아야만 될 것인지 到底히 알수가 없다. 그런데 愛國者야 많은 적든 公害엔 關係가 없지만 愛國을 앞세우고 愛國을 팔아서 먹고살고 愛國愛族이란 美名아래 이루어지는 公害를 愛國公害라고 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高名하고 愛國的인 指導者 將軍·行政家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多幸하고 幸福한 國民일지 모른다. 筆者는 前年 世界先進 몇 나라를 旅行 했을 때 느낀 것으로 제 나름대로 “이 나라는 훌륭한 살기 좋은 나라이구나” 생각된 나라치고 無識해서인지 그 나라의 元首나 首相의 이름을 전혀 모르겠다는 점이다. 또 그 나라의 功勞있는 將軍이나 戰略家를 한 사람도 모르겠더라는 점에서 또는 그런 나라 치고 거리에서 警察官이나 軍人을 못보았다는 점 등은 異常하게 느꼈다. 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훌륭한 政治家나 將軍이 있었을 텐데 또 秩序가 깎갈려 있는데 이 秩序를 確立할 警察이나 軍人이 있어야 할 터인데 왜 안보이는 건지 異常하게 느꼈다. 이와 反對로 나의 所見에서 이 나라는 우리보다도 못하구나 即 低開發國家이구나 생각되는 나라의 首相이나 將軍의 이름은 아니 그들의 略歷까지도 他國人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았고 거리 에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警察과 軍人들을 보았다는 점에서 내 나름대로 문득 理由없이 愛國公害라는 생각을 해본 것 뿐이다.

끝으로 利己公害라는 이름을 붙여본다. 이 利己公害를 끝으로 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모든 公害의 根源이 되는 公害이기 때문이다. 未來學者들이나 “로-마크럽”會員이 아니더라도 世紀末의 危機를 感知한다. 踊念과 拋棄, 絶望과 滅亡의 危機임을 感知할 수 있다. 이미 公害는(各種) 人間의 制禦限界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다.

이런 危機를 拒否하든지 迂廻시키든지 防止 또는 制禦 하려면 먼저 그 公害들의 發生原因을 캐내야만 할 것인데 바로 人間의 利己心이 그 根源이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地球上에 人間이 永遠히 살아남으려면 大自然의 攝理에 順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人間社會에서 自身이 살아갈려면 自己 혼자서는 못산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利己的인 慾心이 原因이 되어 公害를 낳게

해서 自己뿐만 아니라 人類全體의 生命을 危機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나만이, 나만이가 人類나 모든 生物體를 共同危機에 이르게 했기에 이 나만이가 公害中の 公害가 되는 것이다. 人間만이 잘 살자고 하다가 人間이 죽게 된다.

地球上에서 萬物의 靈長이라고 가장 영리하다는 人間이 文化文明을 가지고 芸術을 가지고 言語와 裝飾과 道理를 가지고 있는 人間이 제 재주에 제가 죽게 된다니 “아이로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深思해보면 現在의 各種의 公害는 人間의 知惠와 能力으로 막았다고 假定 하더라도 人間生活의 變化에 따라 느끼지도 못한 像想도 못할 새로운 公害가 반드시 일어날 것도 予知할 수 있다.

이렇듯 公害는 그 原菌이 人間인 以上 人間이 滅亡하는 날까지 따라다니는 宿命的인 것인 줄 안다. 物質文明 과 科學文明이 우리社會를 情報化하고 巨大化시켜 가고 있다.

이런 文明을 構築하는데는 많은 時間과 生活體驗과 그리고 創意와 冒險과 努力이 엄청나게 動員되었다. 그리해서 人間은 地球上에 君臨하게까지 되어 왔으나 이제 公害라는 公敵을 만나 危機에 逢面하고 있다고 해서 絶望할 必要는 없다고 본다. 우리에게 公害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 即, 未來에의 關心, 適應과 調和, 純粹와 儉約, 創意와 超人間性 같은 莫強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公害가 漫延해도 危機一步前에서 體驗과 叡智로서 克服할 것은 틀림없다.

環境汚染公害에 直接的인 關係를 맺고있는 우리 建築人들은 우리가 맡아서 解決해야 할 当面한 人類公害에 專念을 다해야 함은 勿論이겠으나 公害의 原因인 利己的慾心의 抑制가 더욱 先決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公害가 제 아무리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環境公害를 防止할 義務를 지닌 建築이라는 演劇은 繼續되어야 하고 이 演劇을 爲해 幕은 오늘도 來日도 그리고 미래도 울려야만 한다고 본다. 누군가가 말했다.

「人類가 來日 滅亡한다해도 나는 틀앞에 한그루의 사과 나무를 가꾸겠노라」고.

(끝)